수행근기 갖춰야

스님

(대각선원장)



◇'절 하기와 염불, 독경 등 기초수행을 통해 득력하면 화두 참구가 훨씬 수월하다'고 강조하는 월성스님.

배 정진에 들어갔을 때는 무아지경에서 업장이 녹아내는 걸 느꼈습니다. 눈은 아래를 보고 있어도, 등 뒤에서 청난 용광로와도 같은 불덩어리가 내 몸을 관통하더군 이 불구덩이가 지나갈 때 탐진치 삼독과 일체의 번뇌 사라지고 평온한 마음이 찾아드는 걸 체험했습니다. 여 서 혜안(慧眼)과 식(識)이 열리는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며 깨닫는 참된 '기도'는 그대 스스로를 정화시키고, 주변환경을 진리공덕으로 장엄게 한다. 즉 '절 수행'은 제불보살에게 구하여 얻겠다는 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원만구족한 불보살님의 마음로 회복시키는 수행방편이었다.

엄청난 절 수행과 염불, 독경으로 수행력을 얻게 된 스은 어느 절에 가도 조실 스님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허 송광사 방장 구산 스님은 스님을 꼭 끌어안고 옆에 하시면서 상좌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다.

"이 눈깔 먼 놈들아, 절해라."

30대 중반 무렵, 하안거 결제를 하고 일주일쯤 접어들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두를 타파하면 필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주와 하나가 되는 절대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스님은 3천대천 세계를 체험하고 화신불 응신불 법신불을 친견할 수 있는 '절 삼매'와 '염불 삼매'는 탐진치가 멸한 '화두 삼매'에 결코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염불 삼매는 이른바 관세음보살의 세계이며, 화두 삼매의 경지는 언어도단(言語道斷)의 절대세계로써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스님은 환희심을 불러일으키는 염불 삼매의 경지도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절과 염불로 삼매를 얻어 무아의 경지를 체득하고 망상을 조복받으면 화두는 저절로 타파되기 때문이다.

월성 스님의 화두 참구는 31세에 인천 용화사 조실 전강 스님을 친견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월성 스님이 전강 스님을 찾아갈 당시 용화사에는 답도 없어서, 2천여명 정도가 쪼그리고 앉아있었다. 월성 스님이 들어갈 수 가 없어 대문 쪽에 그냥 서 있는데, 법상에 앉아 계시던 전강스

진정 확철대오 원한다면

남위해 살고 아상 극복해야

때 구산 스님이 같이 살자고 말씀하셨다.

"결제 중에 어찌 그런 말씀이십니까?"

"자네는 결제가 필요없는 사람이야. 여기 나하고 같이 방에서 사시."

저질러 놓은 일도 있고 업이 많습니다. 스님, 다음에 기가 있으면, 한번 뵙겠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정진은 절, 염불, 독경에 머물수 없었다. 수행과 염불정진으로 나타나는 경지인 '절 삼매'와 '염 삼매'는 참선정진으로 드러나는 '화두 삼매'와는 비교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 삼매로는 무아(無我)의 세계를, 염불 삼매로는 화엄과 법화경에 나오는 불보살의 세계와 33천 대천세계를

님이 손짓으로 불렀다.

사람들이 길을 터주어 가까이 다가가니 전강 스님이 말씀하셨다.

"귀 좀 줘."

"칼을 가져오지 않아 귀를 잘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를 이리 좀 대봐."

그러시더니 전강 스님이 월성 스님의 귀를 잡아당기며, 소곤소곤 말하는 것이었다.

"얼굴을 보니까, 여기 2천명이 앉아 있어도 너밖에 공부할 놈이 없어. 그래서 내가 불렀어. 언제 기회가 되어서 화두를 공부하면 '이뭐꼬'를 챙겨라."

그러나 본격적인 화두 참구는 36세에 성륜사 조실 청화스님을 은사로 모신 뒤 염불선으로 득력한 후인 46세부터 본격화됐다. 결국 스님의 화두 참구는 49세에 경봉 스님 회상인 통도사 극락선원에서 큰 결실을 맺는다.

극락암에서 옛새가 되는 날부터는 화두를 한번 챙기면 하루 종일 끝도 없었다. 그때는 길을 가다가도 의심만 챙겨지면 알지 못하는 선정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한 달 하루 동안의 선정체험을 통해 '나'라는 것을 찾을 길이 없으며, 우주와 하나됨을 알게 됐다. 21세부터 해인사, 통도사, 봉암사, 백양사 등 제방의 선원에서 정진한 후 30여년만에 얻은 실로 감격적인 소식이었다.

월성 스님은 화두 참구에 앞서 절 수행과 염불, 독경 등의 정진이 필요한 이유를 땅에 말뚝을 박는 데 비유했다.

"말뚝을 땅에 박을 때 계속해서 크게 해머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번은 살살 두드리고 다시 힘을 모아서 크게 내려칠 때 말뚝은 땅 속으로 깊이 박히게 됩니다. 화두 참구도 이와 같아서 평소의 정진에 의해서 얻어진 힘의 바탕 위에 용맹정진을 통하여 선정의 힘이 크게 증장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말뚝 박듯이 온 정성과 힘을 기울인다면 안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숨을 건 스님의 용맹정진을 보여주는 일화가 있다.

스님은 28세에 삼각산 법화사 옆, 호랑이 굴에서 31세까지 토굴 정진을 했다. 당시 이 곳에는 호랑이 들이 많아 사람들이 얼씬도 못하는 곳이었지만, 스님은 호랑이와 몇 번이나 마주치면서도 '도를 닦는다는 사람이면 자기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각오로 위험을 무릅쓰고 동굴에서 정진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한 겨울 호랑이 두 마리와 맞닥뜨려 죽을 지경에 처했다. 호랑이가 혀로 스님의 얼굴을 거칠게 핥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스님은 "내가 전생에 업을 많이 지어서 너희들에게 내가 잔인하게 굴었다면 내 목숨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도와줬다면 너희들도 나를 돕고 갈 것"이라며 태연하게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삼매에 들자 해를 입지 않았다고 한다.

월성 스님은 요즘도 깊은 잠에 들지 않는다. 20여분씩 잠깐 귀잠을 잘 뿐이다. 좌선할 때나 포행할 때는 물론 잠을 자면서도 숨소리를 들으며, 화두를 놓지 않는다. 이른바 보림의 과정이다. 옛 스님네들은 견성 이후의 수행 즉 '볼행(佛行)'을 늦추지 않았다. 오랫동안 중생으로 살아온 습이 한 순간에 떨어져 나가긴 힘들기 때문이리라.

스님은 불교를 제대로 알지 못하던 어릴 때부터 이웃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평소 '중은 공인(公人)이다'고 강조해 온 스님은 요즘도 제자들에게 기도후 세계평화와 인류평화, 조국평화통일, 국가재난 소멸, 국가 안녕과 태평, 육도중생의 성불을 발원할 것을 꼭 당부한다. 남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기도요 수행이며, 이런 발원이 쌓여야만 보다 큰 그릇이 될 뿐만 아니라 성취도 빠르기 때문이다.

"얼마나 큰 공부를 하고 큰 성과를 얻느냐는 얼마나 큰 발원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계평화와 조국통일, 온 국민이 삼세업장을 소멸하고 왕생극락하길 발원하는 것은 큰 공부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진정 확철대오를 원한다면 남을 위해 살고 아상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글=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사진=임민수 기자 yminsoo@buddhapia.com



주경스님의 스님이야기

천호스님



천호스님을 처음 만난 것은 90년 여름 강원도 정선근처의 깊은 산골 외딴 토굴에서다. 강원의 여름방학을 맞아 성전스님을 비롯 몇몇 도반들과 만행을 나선 길에 천호스님이 혼자 머물고 있다는 토굴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기인처럼 산다는 천호스님에 대한 이야기와 강원도 깊은 산골이라는 매력에 빠져 그 곳을 찾게 된 것이다. 밭농사를 지으며 약초를 캐며 살던 사람이 버려 둔 집을 일년간 빌려서 산다는 그 곳에 비포장 길의 덜덜거림에 지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일행의 피로만큼이나 깊은 어둠이 깔려 있었다.

길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앞선 성전스님이 "천호스님~" 하고 외치며 앞서 가고 토굴스님을 위한 먹거리며 물품을 챙긴 도반들이 혹시 길을 잘못 들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함께 더듬거리며 뒤쳐져 따라가고 있었다. 잠시 뒤 천호스님과 함께 지내는 듯한 처사 한사람이 지게를 지고 마중나와 우리를 반갑게 맞았다. 물건을 받아진 처사는 거친 돌길과 작은 냇물을 앞서 걸으며 차근차근 길 안내를 하여 곧 허름한 농가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발 일찍 도착하여 막 걸망을 내리고 우리를 맞이하는 성전스님은 혼자였다. '혹시 천호스님이 어디 출타한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천호스님은?"하고 묻는 우리에게 씩~ 웃으며 눈짓으로 우리를 안내해온 처사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작업복차림에 머리와 수염도 적당히 자라 있었고, 먼저 스스로를 스님이라고 밝히지 않아 해인사의 칼같이 엄격한 대중살이를 하던 우리로서는 선뜻 스님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다. 어쨌거나 잠시 같이 오면서도 스님으로서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처사처럼 대한 것에 양해를 구하고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늦은 저녁을 해결하기 위해 아궁이에 불을 때고 방 정리를 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중에도 '스님이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때로 계를 받고 나서도 스님들은 신분을 숨기고 행자생활을 하기도 하고, 공장에 가서 노동자로 일을 하기도 하며, 농사를 짓기도 하지만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거나 아는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 스님으로서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늦은 저녁을 마치고 흙냄새 풍기는 좁은 방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천호스님은 얼마전까지 근처의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일을 했었고, 그러다가 무너져내린 흙더미에 다리를 다쳐 대충 치료를 하고 휴양겸 해서 그 곳 토굴에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늦도록 나눈 차와 이야기로 다음날 늦은 아침을 먹고 함께 산행에 나섰다. 앞장서 안내하며 풀어놓는 산 골짝골짝 품은 이야기들이며 나무와 풀꽃들의 이야기, 그리고 버섯, 물고기며 약초 등의, 듣기만 해도 푸짐하고 넉넉한 이야깃거리와 천호스님의 수더분하면서도 사람을 끄는 구수한 말투는 정말 산골생활 오래된 심마니와 다름없이 해박했다. 어눌하지만 분명한 언어선택으로 이야기를 하고, 깊이를 가진 맑은 눈매에 농사꾼같이 부담없는 행동과 삶의 방식은 강원생활 중 스님으로서의 걸모양에 집착이 강했던 나에게 새로운 충격이 되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 멀리 강원도 오대산으로 출가한 천호스님은 출가하였지만, 오롯하고 반듯한 스님생활과 수행 말고도 해보고 싶었던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탄광의 광부로, 산골의 농사꾼으로, 한때는 멀리 알래스카의 바다를 떠도는 원양어선을 타기도 하며 젊은 열정과 에너지를 세상사와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부딪치며 발산하

젊은 열정 삶의 현장서 치열하게

광부 농부로 원양어선 타고 만행

기도 했단다.

해가 지나고 성전스님으로부터 천호스님이 다시 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 탄광촌으로 가서 생활하다가 당시 처음 시행되었던 '확사고시'에 응시했는데, 전국수석인가를 차지해서 언론과 방송을 타게 되었고, 마침 방송을 본 은사스님이 찾아가 다시 승복을 입은 것이다. 산으로 돌아온 스님은 100일 기도로 그간의 만행을 정리하고는 걸망을 멘 선방 수좌의 길을 걷고 있다.

천호스님은 감성이 풍부하고 시를 좋아해 입을 열면 밤을 새워 외울만큼 시를 외우고, 책을 잡으면 그 현지를 꿰뚫을 지혜가 있으며, 몸으로 부딪치는 노동과 육신의 고단함도 두려워 않고 도전하여 견딜 줄 아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출가 전에 월급봉투 한번 받아보지 못했음이 늘 아쉬움인 나에게 천호스님의 만행담은 부러움을 넘어 경이로움이다. 또 정진의 길에 들어서는 뒤돌아보지도 곁눈질하지도 않고 한 길로만 향하는 우직함은 빨리 함께 그 길을 가고 싶은 바람과 더불어 좋은 도반을 가진 큰 위로와 넉넉함이 되어주곤 한다.

문득 바람처럼 찾아와 잠시 차를 마시거나 이야기를 나누곤 별 기약 없이 홀연히 떠나지만 천호스님의 자리는 늘 든든하고 따뜻하다.

▩ 서산 부석사 주지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육임학당「曉史塾」제4기 강의 안내

● 강의시작 : 2002년 12월 6일(금) 오후5시부터 매주 금요일 4시간씩
● 등록마감 : 2002년 11월 30일까지
● 등록비용 : 일백오십만원(카드결제 가능: 효사육임강의록 교재 포함)
● 기 간 : 3개월 13주 52시간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 영 란

정통 육임강의 제4기를 모집합니다.

육임학당에서 3개월 공부를 마치면 「비영리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에서 시행하는 「육임고시」를 치른후 한국육임학회 회원으로 영입되어 정통 육임가로 활약하게 됩니다. 육임은,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는 정단 비법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당장의 절박한 문제를 물어옵니다.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 「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 예언해 주어야만 세태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됩니다.
육임은,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 같아서 인사(人事)에 있어 으뜸된 신시(神示)요, 오술지중제왕(五術之中帝王)인 것입니다. 육임을 만나면 활인천역자로서의 능력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각 지역 강의안내

육임학당 광주숙 제2기	● 개강 - 11월 25일	● 전화: 011-9606-7090
육임학당 대전숙 제2기	● 개강 - 11월 26일	● 전화: 016-445-4580
육임학당 인천숙 제2기	● 개강 - 11월 27일	● 전화: 011-729-6011
육임학당 복경숙 제2기	● 개강 - 11월 30일	● 전화: 02-3446-4118
육임학당 일경숙 제2기	● 개강 - 12월 3일	● 전화: 02-2203-4805

육임학당 曉史塾 직통 02-996-3335 서울 강북구 수유3동 190-49 일심빌딩 401호 (지하철 4호선 수유역 하차 8번출구 강북구청 왼쪽 옆건물)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수정보완본 출시

이 책은 비쌉니다! 그러나, 내용은 몇배 더 비쌉니다!
한문을 몰라도, 출생 년월일시를 몰라도, 만세력을 펼치지 않아도,
오생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찾아(전화)온 시간만 보면 그 사람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특히,

■ 귀신 침범을 정확히 잡아 낼수 있고 그 귀신을 물리칠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이 귀신을 밝히면 그 집안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인 받게 됩니다)
■ 병자(病者)가 지금 어떤 귀신의 침해로 병들었나를 잘 밝히게 됩니다. 해소 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그 귀신만 시식하면 병이 낫게 됩니다)
■ 천도 시식 굿의 효과를 미리 알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활인 능력이 단박에 높아지고 살림이 편안해 집니다.
이점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 산소탈을 잘 밝혀 내게 됩니다.
그 해소방법이 써져 있습니다.
(누구의 산소 인가를 알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정 빌미 사승을 밝히게 됩니다.
그 처방이 써져 있습니다.
(집안 누구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될뿐 아니라 해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장의 절박한 문제들을 물어옵니다. 내일 모레 되어질 일을 묻는데 기도 치성만 하라고 해서 속시원한 해답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급한 것을 확실하게 즉시「된다 안된다, 좋다 나쁘다, 해라 마라」대답해 주어야만 세태 인심은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행은 사법(邪法)이 아니라 아만공고(我慢供高)를 경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공부가 안되신 분은 이 책을 보시면 해결됩니다.

값 : 2,500,000원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 12권 (부록 : 비디오 포함) 우단금박표지, 적색모조지, 8절크기, 메일 차트식 바인더

주문안내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목문
■ 주문전화 : 02-993-8680 · 02-996-3335 부산지사 051-851-2349